

사설

기다려지는 여름 단기출가

이런 여름에는 각 사찰이 단기출가 수행 등 수련대회들로 꽉차게 될 전망이다. 수많은 인파가 물러드는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를 찾기보다는 승가의 엄격한 법도와 용맹정진을 체험하며 의미있게 보낼 재가불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4박5일 정도의 일정으로 불자들의 심신수련을 목표로 개최될 수련대회에 참가할 지원자들이 이미 수용의 한계를 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들은 모집인원보다 훨씬 넘게 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마치 입학시험처럼 서류전형에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

간기출가 여름수련대회를 가장 먼저 실시했던 송광사는 이미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역사성 만큼이나 규율이 엄격하고, 강인·율인·선인을 모두 갖춘 총림이란 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가불자들만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다. 10년 넘는 기간동안 축적된 산사수련의 유익함과 감동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정적인 불자 혹은 무종교인에게도 인기가 높다니 더없이 반갑고 다행이다.

이렇게 한여름의 휴가와 방학을 산사의 범종소리와 함께 출가정신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도심속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염된 심신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다만 이러한 단기출가제도를 포교차원에서 정착하는 것은 물론이며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개선·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종단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첫째, 종단차원의 통일된 수련대회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련대회의 참가범위가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련내용과 프로그램도 다양함과 함께 전문성, 적법(佛法)성이 요구된다. 한국불교의 3대 목표인 역경·포교·도제양성 가운데 특히 포교의 방편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포교의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각 사찰별로 전통과 수련환경 등의 특성은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인 틀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종단차원에서 인적·물적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수련대회나 단기출가를 과학적으로 기획·지도할 승가·재가의 전문강사등 인적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산사수련대회는 해당 사찰의 몫으로 이뤄내 호평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진입보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수련시설의 확충등 재정지원도 고려할 때이다.

셋째,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자원의 홍보를 위해 불자들의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가불자들은 이러한 수련대회에 단기출가가 얼마나 필요하고도 중요한가를 새삼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가족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해진다. 부처님의 정법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이를 생활화·사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1600여 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불교가 명실공히 우리문화의 정신적 지주라 되고 한민족의 지상승전 유산으로서 제구실을 다할 수 있는 중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열린마당

북한등포 식량지원 범중추공청의 지상중계

정부가 3백만불 북한 지원발표 등으로 다시 북한수재민 돕기가 종교계 안팎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영삼대통령이 조건없는 대북식량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정부와 종교계는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범중추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이하 범중추)는 지난 14일 '북한등포 식량지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기조강연과 토론을 통해 정부와 종교계의 쟁점을 파악하고 종교계의 입장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군량미로 사용않는 투명성 전제돼야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

북한 수재민돕기 활성화야말로 남북의 화해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낸 식량이 굶주린 북한동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군량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납득되어야 북한지원은 활성화될 것이다.

굶주리는 북녘동포 돕는건 당연지사

이윤구 <범중추 집행위원장>

'인수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종교의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종교인은 겨레사랑의 빈곤과 정치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증병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 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하늘과 동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행여 동일이 갑작스레 올 때 어떻게 낚을 들고 북녘 동포들을 대하겠는가.

종교단체 식량지원 남북통일에 일조

스티브 린튼 <유진벨재단 이사장>

식량지원이 북한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가우에 불과하다. 핵무기 경쟁이 극심할 때도 미국은 소련국민을 도와줬다.

종교단체의 식량지원은 북한체제가 무너질 때 오히려 남북국민을 자연스럽게 화합시키는 등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는 UN이나 외국의 구호단체를 활용해야 한다. 언젠가는 직접 전달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北 공식요청시 본격지원... 민간 창구단일화

정기영 <정기영>

△북한당국이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한 반도내에서 개최하며 △남한에 대한 비방중지가 이뤄지는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대북지원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를 단일창구로 하되 지원목적을 확대, 쌀을 제외한 곡물

지원을 허용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방침이다.

남북종교인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송영대 통일원차관은 지난 14일 한 종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북지원에 관한 신한국당내의 분위기도 신중론에서 적극론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의 한 주부가 유진벨재단을 통해 전달된 9kg짜리 쌀포대 2개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유진벨재단 제공)

북한 식량사정

북한의 식량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은 냉해피해를 입었던 93년부터이다. 북한의 곡물생산은 80년대에는 1년 소비량인 5백만톤을 유지했지만 93년에는 4백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식량사정이 악화된 것은 냉해와 홍수 등 자연재해의 원인도 있지만 관개시설 부족, 토질산성화, 비료와 농약 농기계의 부족도 지적된다. 또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주의 농업관리방식(집단농장)이 한계에 이르렀음도 원인이다. 지난해 홍수는 북한농업의 구조적 모순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것이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심각하다고 보고하면서 '5세 미만의 영유아 52만15천명이 영양상태가 실조에 가깝고, 황해북도의 극심한 수해지역은 35만15천여명에 보건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10만명의 영양실조 예방은 시간을 다투는 긴급 사업'이라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투명성 확보문제와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대한적십자로의 창구단일화, 법타스님 김명혁목사 최기식신부 등 종교계 대표와 김은근 농촌경제연구소 북한농업연구소장 장원석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 정부관계자의 토론참여를 요청했으나 불참했다.

투명성확보 문제는 정부가 종교단체의 발목을 붙잡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도 대북지원에 냉담한 정부의 관리들 사이에 퍼져있다.

정원석교수(단국대·경실련 통일협회 경제분과장)는 이에대해 "현미로 보낸면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군량미로의 적용은 어렵다"며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개신교계의 요청으로 무차별 북한에 식량을 전달한 미국 유진벨재단의 스티브 린튼 이사장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상주 직원 컨테이너 도착부터 주민분배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아프리카보다 확실하다" 평가했다.

北 개방적 수용 선결과제 창구단일화 '정치논리다'

대한적십자사로의 창구단일화는 토론자 모두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타스님(조계종 전 총무부장)은 "아직도 정부는 냉전논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달방법을 다양화해 종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닌 북한사람들을 서서히 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식 신부(천주교교구교회의 사회복지부 총무)는 "배고픈 형제를 돕는데 방법을 놓고 힘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끌려다니는 안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종교계의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대표 등 1백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대북식량지원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식량제공의 범위를 민간 구호기관에 맡길 것과 △기업과 언론의 대북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또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남한의 지원을 직접 수령하는 개방적인 자세와 투명성 보장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만평



현대판 신문고

목어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리며 거기 희망을 건다. 즉 내일이 있어 오늘을 살고 그래서 오늘이 더욱 소중하다. 오늘을 마구살면 내일은 무너진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치 내일을 포기한듯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새겨야 할 말이다. 검은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죽은 강 한탄강을 보노라면 뻔뻔한 '씩은 양심'을 보는 것 같아 한탄스럽기만 하다. 도대체 살자는 것인가 죽자는 것인가.

주민들은 말한다. "한탄강의 신천오염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비만오염 어느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방류 하는지 눈치채고, 10년전부터 관에 항의하다 지쳤다. 그래서 이제 사건화하는 것에 오히려 어이없을 뿐이다." 시민들은 이구동성

'씩은양심'을 소생시키자

으로 당국의 감시소홀, 무관심, 무능력, 고의적 은폐를 비난하면서 '환경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언론이 떠들고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이제 한탄강을 다시 살리고 나아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웬지 썩 믿기지 않으니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은 녹색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한탄강은 환경비상사의 일부만

드디어 조순 서울시장은 사회 각계 인사 1천명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 과감하게 차를 집에 두고 가까운 지하철 역이나 버스정류장으로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은 더 늦기전에 '환경비상사태'를 선포하자고 촉구했다. 어느 교수는 이 위기를 넘기려면 정부·업체·시민 모두 혁명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불교계에서는 때마침 대도시 순회 '청정운동 실천대회'를 갖고있다.

이러한 운동과 의지와 호소가 헛되지 않아 '씩은 양심'을 소생시키고 '이기심'이 '보살심'으로 전환되길 염원한다. 그러면 내일의 청정국토를 기대할 수 있다.

새생명을 위한 부처님 말씀

진정한 친구

"나는 너의 친구다" 많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가 아닌것을 알아라.

(이창경)

협찬 유마선원
원장 이재열
TEL. (02) 597-9129

제 23 회

대한불교 유치원 · 어린이집 교사 연수회

주제 : 부처님 마음 · 어린이 마음

일자	시간	3일 (토)	4일 (일)	5일 (월)
	05:00 - 05:30		기 상	기 상
	05:30 - 06:30		예 불	예 불
	06:30 - 08:00		아침공양	아침공양
	08:00 - 09:00		불교유치원 행사 프로그램 소개 및 인형극, 구연동화	유아예절교육 (한마음유치원 서정희원장님)
	09:00 - 10:00			불교와 유아교육 (동국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박선영교수님)
	10:00 - 11:00		유아의 언어표현과 지능발달 (이화여대교육심리학과 김재은교수님)	폐강식
	11:00 - 12:00		점심공양	제회를 약속하며(점심공양)
	12:00 - 13:00		등 록	
	13:00 - 14:00		개강식	예쁜중이나라 (KBS/TV유치원 만들기 김명환강사님)
	14:00 - 15:00		발우공양습의	불교교재 활용법(목련연화유치원)
	15:00 - 16:00		적지사에 대하여 (적지사교무 대혜스님)	불교유치원 노래 및 유아레크리에이션 (선재 이벤트)
	16:00 - 17:00		저녁공양	저녁공양
	17:00 - 18:00		저녁예불	저녁예불
	18:00 - 19:00		예불문답의 (범어사 무비스님)	우리의 전통문화 (마당놀이 국민 김종열 강사님)
	19:00 - 20:00		취 집	취 집
	20:00 - 21:00			
	21:00 - 22:00			
	22:00 -			

■ 기 간 : 2540년 8월 3일(토) - 8월 5일(월)(2박3일)

■ 장 소 : 경북 김천 직지사

■ 주 최 : 대한불교 유아교육협회

■ 후 원 :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 협 찬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포교원

■ 수강요령 : 유치원 교사, 어린이 집 교사 및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분

■ 수강인원 : 250명(선착순 접수)

■ 연수회비 : 50,000원(수강료, 숙박비, 기념품 지급)

※ 연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교재와 불교유치원용 찬불가 테이프를 드립니다.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색종이수업준비물(양면색종이 5통, 풀, 가위, 색도화지 8절지 3장, 고무밴드, 테이프, 우유곽 2개, 빨대 3개, 종이컵 4개)

(법복바지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회장 : 경북 김천시 황악산 직지사 전화 : 중무소(0547-436-6174)

■ 교통안내 : 대형버스(부천석왕사)가 당일 아침 6시 부천 북부역 출발
→7시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정문 경유
→11시, 12시 김천역(2회운행) →직지사 도착

■ 문 의 :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사무국(부천석왕사 룸비니 유치원)
전화 : 032-652-0059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회장 임영담 합장